



24일 강진서 열린 제46회 전남도민체전 개막식에서 '강진청자 신비속에서 하나되는 도민체전'을 슬로건으로 대회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강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여수·광양·목포 1위 다툼 치열할 듯

'200만 전남 도민의 한마당 잔치' 제46회 전남도민체전이 24일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개막돼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육상, 축구, 배구 등 18개 종목에 걸쳐 5천666명(임원 1천903명, 선수 3천763명)의 선수단이 참가, 기량을 겨룬다. '강진청자 신비속에서 하나되는 도민체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지난해 우승한 순천시가 2연패를 노리는 가운데 여수, 광양, 목포등이 종합 1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강진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강진 실내체육관, 강진

## 전남도민체전 어제 강진 개막

동초등학교 체육관, 나주사격장, 등 21개 보조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이날 개막식은 오후 5시 도민, 선수 등 2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입장, 대회기 계양, 심판대표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강진군 풍물패 공연, 해군 의장대 시범, 공수특전단 고공낙하시범, 열광여고 마칭 밴드 쇼, 경비행기 에어쇼 등이 펼쳐졌다. /강진=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또 연연인 초청 축하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도민 화합을 기원하는 불꽃놀이도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박준영 전남체육회장은 대회사에서 "도민체전은 전남체육의 최대 잔치이며 도민 모두가 어울리는 어울림 마당이다"며 "전남도는 2010년 세계 3대 스포츠 제전인 F1그랑프리 자동차 대회 등 전남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획을 긋는 대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그 능력과 에너지를 증명하자"고 선전을 당부했다. 한편 입장장은 장흥군이 1위, 고흥군이 2위, 진도군이 3위를 차지했다. /강진=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빠르면 5월 복귀”

## 최희섭 KIA행 이적료 해결되면 금물살 탈듯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 리그 타자인 최희섭(28·탬파베이)의 한국프로야구 복귀가 금물살을 타고 있다. 빠르면 5월중에 호랑이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KIA의 한 관계자는 24일 “최희섭과 입단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적료 문제가 남아있다. 잘 풀리면 5월내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단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계약 관계가 빠르게 정리된다면 5월내에 한국프로야구에서 최희섭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희섭의 에이전트 이지훈씨도 최근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복귀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최희섭의 예상 몸값은 지난해 마이네리그 트리플 A에서 국내로 돌아온 봉준근(27·LG)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봉준근은 지난해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연봉 외 특별보너스) 10억원에 연봉 3억5천만원에 LG와 계약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다소 지연될 여지도 남아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적료



정재공 KIA 단장은 “최희섭의 국내 복귀를 타진하고 있으나, 탬파베이가 요구하는 이적료가 걸림돌이다. 이미 올해 집행할 예산 규모가 결정됐기 때문에 고액의 몸값과 이적료를 주기는 쉽지 않다”며 협상에 어려움을 있을 것을 밝혔다. 탬파베이는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된 뒤 마이네리그 계약을 하지 않은 최희섭의 이적 대가로 KIA에 상당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단장은 또 “올 시즌 베스트 멤버가 짜진 상황에서 무리까지 해서 급하게 영입할 필요는 없다”며 “일단 최희섭측의 에이전트와 좀 더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며 계약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희섭이 이적료 문제를 풀고 KIA로 복귀한다면 대대적인 포지션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호(1루수)와 포지션이 겹치게 될 때 따라 외야수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재주의 자라인 지명타자가 가장 유력하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타자인 최희섭의 국내 복귀는 침체된 한국 프로야구의 흥행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IA로서도 이적비 이후 대가 끊긴 프랜차이즈 스타를 보유하게 될 때 따라 팬들을 야구장으로 끌어 모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군 복무 중에도 휴가 내서 참가...32년 '도민체전 단골'

### 화순군 탁구대표 53세 오 국 탁씨

“체력이 허락하는 한 도민체전에 계속 출전해 22개 시·군 선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제46회 전라남도도민체육대회에 화순군 탁구대표로 32년째 출전하는 오국탁(53·광주시 양산동)씨는 “이제 성적이 연연하기 보다는 제자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오씨의 본적은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8번지. 그래서 도민체전 출전이 가능하다. 화순초등학교, 화순중학교를 졸업한 오씨는 송원고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부터 도민체전에 참가해 이번 대회까지 32년간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출전하고 있다.

오씨의 별명은 ‘도민체전 호적계장’. 시·군 선수단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진표만 봐도 팀이 준결승에서 탈락할 지 우승이 가능한 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때문이다. 오씨의 도민체전 사랑은 체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됐다. 오씨는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직장에 몸담았을 때는 도민체전기간에 맞춰 휴가를 내 대회 출전을 빠뜨리지 않았고, 군대에서도 휴가를 통해 대회에 출전했다.



오씨가 탁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송원고등학교 1학년때. 취미로 시작한 탁구가 32년 동안 화순군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동하게 됐다. 현역선수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화순능주초등학교, 광주 문화초등학교등에서 선수들을 지도했고, 소년체전 전남대표팀을 지도하는 등 지도자 생활을 했다. /최재호기자 lion@

## 프로야구 일요일·공휴일 경기시간 변경

### 내달부터 오후 2시에 시작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월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기 시작시간을 종전 오후 5시에서 오후 2시로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KBO는 최근 경기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가족 관람객들의 귀가를 돕고 관중을 더 모으기 위해 경기 시간을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5일부터 한 달은 오후 5시에 시작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편 팔꿈치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에이스 펠릭스 에르난데스를 대신해 이날 빅리그의 부름을 받은 백차승은 텍사스 주 알링턴 레인저스 볼파크에서 벌어진 텍사스 레인저스와 방탄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 4.1이닝 동안 1개 투구로 1개 안타를 맞고 4점을 내준 뒤 4-4이던 5회 1사 1.2루에서 브랜든 모로로 교체됐다. 모로가 추가로 점수를 내주지 않아 백차승의 자책점은 4점에 그쳤다. 평균자책점은 8.31. 시애틀은 0-0이던 4회 1사 만루에서 호세 로페스의 우전 적시타와 계속된 2사 만루에서 스즈키 이치로의 좌익이 우전상 3루타로 4점을 얻어 백차승에게 승리 요건을 안겨줬었다. 시애틀은 7회 1점을 보며 5-4로 승리했고, 백차승을 구원한 모로가 승리 투수가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빅리그 컴백 명암

## 엄지 부상 중간계투 김병현 선발 투수로 돌아올 가능성

오른손 엄지 타박상으로 15일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미국프로야구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이 선발 투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겼다. 콜로라도 구단은 24일(한국시간) 클린트 허들 감독의 말을 인용, 김병현이 마이네리그 재활 등판에서 계속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7일 부상자 명단에 오른 뒤 전날 첫 재활 등판을 치른 김병현은 포틀랜드 비버스(샌디에이고 산하)를 상대로 선발로 나서 3.2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슈아내며 안타 1개와 1점(비자책)만을 허용했다. 투구수는 65개였다. 구단은 감독의 조치가 김병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발로 뛰게 될 상황을 대비, 재활 등판에서 투구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추신수 2타점 적시타 ‘웃고’ 백차승 4.1이닝 4실점 ‘울고’

주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오른 틈을 타 올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투수 백차승(27·시애틀 매리너스)과 외야수 추신수(25·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희비가 엇갈렸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험프리 메트로 돔에서 벌어진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탄 경기에서 좌익수 겸 8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팀이 5-3으로 앞서던 연장 12회 무사 만루에서 상대 마무리 투수 조 네이던을 상대로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터뜨려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클리블랜드의 7-3 승리. 왼쪽 허벅지 근육통으로 15일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앤디 마르테를 대신해 빅리그에 올라온 추신수는 찬스에서 해결 능력을 과시하며 에릭 웨지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트리플 A 버펄로 바이슨스에서 타율 0.294(34타수 10안타)를 때렸던 추신수는

이날 2회와 8회, 연장 10회 등 세 번이나 삼진으로 돌아섰고, 4회에는 2루 땅볼로 물러났다. 6회에는 볼넷으로 출루해 2루 도루를 감행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귀중한 순간 안타를 때려내며 전타석의 부진을 한 번에 씻었다. 추신수의 통산 타점은 25개가 됐다. 한편 팔꿈치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에이스 펠릭스 에르난데스를 대신해 이날 빅리그의 부름을 받은 백차승은 텍사스 주 알링턴 레인저스 볼파크에서 벌어진 텍사스 레인저스와 방탄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 4.1이닝 동안 1개 투구로 1개 안타를 맞고 4점을 내준 뒤 4-4이던 5회 1사 1.2루에서 브랜든 모로로 교체됐다. 모로가 추가로 점수를 내주지 않아 백차승의 자책점은 4점에 그쳤다. 평균자책점은 8.31. 시애틀은 0-0이던 4회 1사 만루에서 호세 로페스의 우전 적시타와 계속된 2사 만루에서 스즈키 이치로의 좌익이 우전상 3루타로 4점을 얻어 백차승에게 승리 요건을 안겨줬었다. 시애틀은 7회 1점을 보며 5-4로 승리했고, 백차승을 구원한 모로가 승리 투수가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연아 “허리치료 잘 하고 있어요”

▶김연아가 최근 남성잡지 ‘맨스헬스’ 5월호 화보 촬영에서 한층 성숙하고 여성적인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허리치료 잘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부상의 악재를 딛고 2007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오랜만에 공개석상에서 환한 미소를 선보였다. 김연아는 24일 오전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강주인(안)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가해 “허리치료를 잘 받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다”며 “빙상장 훈련을 즐기고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을 주로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김연아는 이날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향후 1년간 아시아나항공이 취향하는 전 노선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후원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이번 시즌 일정에 대해 김연아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재팬오픈 2007에 참가한 뒤 5월에 캐나다로 떠나 전지훈련을 하게 된다”며 “이후 10~12월까지 그랑프리 시리즈를 소화하고 내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